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박찬일/편집인 : 서창욱/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의 단체회원은 2007년 12월 현재 165종(의학회, 의학 협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24, 의과대학 학술지 12, 기타 학회 학술지 29)이며, 개인회원이 37명입니다.

또한, 특별회원은 지난 8월 신규로 가입한 KISTI를 포함하여 광문출판사,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의학문화사, 중앙문화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Google Inc., JOY DESIGN, NHN(주), proquest 한국지사 총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사무국(Tel : 798-3807, Fax : 794-3148)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KoreaMed Synapse - 새로운 차원의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연세의대 교수 박찬일)는 한국 의학학술지의 전자 출판 및 참고문헌 연결 기반(digital archive and reference-linking platform of Korean medical journals)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 Synapse의 서비스를 2007년 12월 1일자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관리위원회 주도로 2006년 7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년 5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KoreaMed Synapse에서는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ubMed Central(PMC) XML을 이용하여 영문 학술지 전문(full-text)을 제공하고, 한글 학술지인 경우에는 서지사항, 영문초록, 표, 그림 및 참고문헌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참고문헌에서 DOI를 이용하여 바로 전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현재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등 16종의 학술지가 참여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PMC에 학술지를 등재할 때 같은 XML을 사용하여 사전에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DOI를 제공하는 학술지의 landing page(response page) 역할을 하여 끊임없이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를 전 세계의 학술지와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의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에서도 PubMed Central에서 제공하고, Science Direct나

BioMed Central 등 대형 상업회사 또는 PLoS와 같은 비영리 출판사에서 일부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학술문헌 정보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고, 또한 PMC 등재 신청에 필요한 기술력을 잘 갖추어 조금 더 손쉽게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더구나 국문학술지임에도 영문초록과 영문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작성하므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와 그림을 보여 줄 수 있어 비록 국문 전문을 보지 못하더라도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 세계에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린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웹에 영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 국제학술문헌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국제 유통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이로서 우리나라 의사 사회는 자체의 힘으로 국내 어느 곳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PubMed, Web of Science, JCR Web, PubMed Central 및 DOI landing page에 해당하는 KoreaMed, KoMCI Web, KoMCI JCR Web 및 KoreaMed Synapse를 Open Access로 구현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Site 주소는 <http://synapse.koreamed.org> 이다.

- 허 선(의편집 정보관리위원장) -



그림1. KoreaMed Synapse 첫화면



그림2. KoreaMed Synapse에 등재된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의 PMC XML 화면



2007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 개최

본 협의회에서는 2007년 7월 1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11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학술지 국제

유통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 발표 자료는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의 '소식지/Workshop 자료'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 : 서연림(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 2:00 - 2:20 등 록
- 2:20 - 2:25 회장 인사말
- 2:25 - 2:30 격려사

- 박찬일(의편협 회장)
- 김간상(대한의학회 회장)

제 1 부 의학학술지의 국제 유통 구현

좌장: 임정기(의편협 부회장)

- 2:30 - 2:50 KoMCI 7년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영향력
- 공효순(의편협)
- 2:50 - 3:00 질의 응답
- 3:00 - 3:20 Biosis, CINAHL,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 Tropical Diseases Bulletin 에 등재된 국내 의학학술지 및 등재 절차
- 정소나(의편협 정보관리위원)
- 3:20 - 3:30 질의 응답
- 3:30 - 3:50 휴 식



제 2 부 PMCI, CrossRef 및 Google Scholar

좌장: 서창욱(의편협 운영위원장)

- 3:50 - 4:10 PubMed Central International in Korea, CrossRef/DOI, Google 시대의 학술지 형식 요건
- 허 선(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 4:10 - 4:25 질의 응답
- 4:25 - 5:15 Google Scholar의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색인 및 전산화 제안
- 서창욱(구글 코리아)
- 5:15 - 5:50 질의 응답
- 5:50 폐 회



DOI/CrossRef, PMC XML 워크숍 개최

정보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7월 25일 학회, 출판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숙명여자대 학교 순현관 문헌정보학 실습실에서 DOI/Crossref, PMC XML 작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

최하였습니다. 워크숍 자료는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의 '소식지/Workshop 자료'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 : 허 선(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 09:30 - 09:35 인사말

- 허 선(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제 1부

- 09:35 - 10:35 DOI, CrossRef, PMC and KoreaMed Synapse : Why? How?
- 이준실(의편협 정보관리위원)
- 10:35 - 11:00 PMC 작업 Processing에 대하여
- 허 선(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 11:00 - 12:00 PMC XML 작성
- 이선희(의편협)
- PMC XML DTD 분석
- XML 출판을 위한 이미지 처리 방법



제 2부

- 13:00 - 15:40 PMC XML coding 및 validation 실습
- Journal -meta, Article-meta coding (article-ID 입력방법, 저자명, 소속기관 등 처리 등)
- Body coding (이미지 처리 특수문자 처리 reference - link 처리 등)
- Citation coding(Dr. Xml 사용법 등)
- 15:40 - 16:00 휴식 시간
- 16:00 - 16:20 KoreaMed Synapse XML
- 공효순(의편협)
- 16:20 - 18:00 DOI/CrossRef XML 실습
- DOI 부여하기
- how to deposit in CrossRef
- how to query and look up from CorssRef
- 18:00 폐 회





WPRIM 서울 미팅 성공리에 개최

서태평양지역 인덱스 메디쿠스 구축 회의 21~23일 성료 내년 5월 서울서 아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총회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 후원하에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제 2회 서태평양지역 인덱스 메디쿠스(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구축과 운영에 관한 회의를 열고서태평양지역 의학학술지의 온라인 DB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미팅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몽골 등 7개국의 의학학술지편집인·학술지 출간 전문가·학술정보 담당 전문가·의학도서관장 및 사서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온라인 의학지식정보 DB를 구축, 공유함으로써 아태 지역 인류의 건강 향상에 기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KoreaMed에 등재돼 있는 한국학술지

131종, 중국 학술지 64종, 필리핀 학술지 12종, 일본 학술지 2종, 몽골학술지 2종을 WPRIM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향후 WPRIM 등재 절차는 해당 회원 국가의 학술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지를 추천받은 후 각국대표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해당논문의 초록 혹은 전문을 영문으로 수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아태 지역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sia-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APAME) 창립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APAME 창립을 통해 아태 지역 의학학술지 편집인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조를 활성화하고, 편집 업무 중사자의 교육과 성찰을 통해 편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APAME은 WPRIM의 효율적 운영과 등재 학술지 선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의편집 회원 학술지 DOI 기재 현황

대한안과학회지가 2007년 8월호에 국내 최초로 DOI를 기재한 데 이어 현재 9개 학술지(대한대장항문학회지(10월호), 대한소아신장학회지(10월호), 대한안과학회지(8월호),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10월호),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10월호), J Korean Neurosurg Soc(10월호), Korean J Hepatol(9월호), Korean J Parasitol(9월호), Yonsei Med J(10월호))가 DOI를 인쇄하여 출

판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미 출판된 학술지를 포함 모두 16종의 학술지가 DOI를 인쇄하여 출판할 예정이며, 앞으로 많은 회원 학술지가 추가로 CrossRef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DOI 관련 안내를 원하는 학회는 본 협의회의 담당자(전화: 798-380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6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실시

2007년 10월 31일(수)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제 6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지 재평가는 KoreaMed에 등재된 12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대한류마티스학회지(3.33), 대한번역학회지(3.43), 대한법

의학회지(2.77), 대한안과학회지(3.57), 대한외과학회지(3.55),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지(2.89), 예방의학회지(3.94), 전남의대 학술지(3.64), 천식 및 알레르기(3.88), 한국심초음파학회지(3.34),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3.76), Korean Journal of Radiology(4.15)



제 6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 심사평

1.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는 대한류마티스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연 4회 발간된다. 평가대상이 된 2007년도 9월호에는 종설 1편, 원저 7편, 증례보고 9편의 논문과 임상화보가 게재되었다. 투고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일부 문장은 수동형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참고문헌의 부록 및 abstract 작성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였고 일부 오류를 지적하였다. 표의 각주 표기에서 약자 풀이의 대소문자의 차이를 보여 각주기도 국제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권고하였다. 표와 본문에서 오지를 보여 지적하였고 일부 원저는 논문의 내용과 성격으로 보아 증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 설명의 대소문자 오류가 보였고 사진 설명의 문장형태와 시제 통일이 필요한 논문들도 있었다. 임상화보의 조판 정렬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인쇄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일관성이 잘 유지되어 있었으나 일부 오류와 수정요망 사항들이 있었다.

2. 대한법의학회지

대한법의학회지는 대한법의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된다. 평가대상이 된 2007년도 5월호에는 원저 12편, 증례보고 10편, 춘계학술대회 초록이 게재되었다. 목차에서 원저와 증례의 표기를 권고하였다. 투고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본문이 영문인 논문은 영문초록이 없이 국문초록만을 발표하고 있어 지적하고 영문원고의 경우 영문으로만 논문을 내도록 투고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학술지의 영문약칭을 투고규정과 다르게 각 논문 서지사항에 표기하고 있어 편집인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편집인과 저자의 오류가 모두 관찰되어 보다 세심한 편집을 필요로 하는 학술지로 판단하였다. 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문으로 작성된 표가 많았는데 학술지의 성격으로 보아 영문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투고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많은 부분 일관성 유지와 투고규정의 개정 및 보완 편집인의 꾸준한 점검이 필요한 학술지로 평가하였다.

3. 대한인과학회지

대한인과학회지는 대한인과학회의 공식간행물로서 매월 발간된다. 평가대상이 된 2007년도 9월호에는 원저 15편, 증례보고 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투고규정과 본문에서 모두 여러 오류를 관찰하였다. 참고문헌의 오류, 단어 사이 간격오류가 보였고, supplement의 기재법 안내가 필요하였다. 표의 약어 표기가 없는 논문도 있었고 표기법의 통일이 필요하였다. 각주표기가 투고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표에 가로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었다. 매 월 상당한 분량으로 발간되는 우수한 학술지이므로 조금만 세심하게 편집에 정성을 들이면 국제규격에 손색없는 학술지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4. 대한외과학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학회 산하분과학회의 하나인 대한외과학회에서 일 년에 12회 발행하는 공식학술지이다. 투고규정, 종이의 질, lay-out, 사진의 질 등은 모두 국제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참고문헌을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여 앞으로 국제학술지로서 손색이 없지만, 영문 표기법에 따라 수정을 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다음 한글중심 단어는 굳이 넣지 않아도 무방하다. 본문이 영문인 논문에서는 국문 제목이나 국문저자명은 삭제하는 것이 모양이 좋고 주소까지도 모두 영문으로 쓰는 것을 권한다. 또한 인덱스 메디쿠스 등재를 추구하므로 영문 aims and scope 이외에도 투고 규정, 편집위원, 심사위원 임원 명단 등도 영문으로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발행일을 앞으로 매월 1일로 바꿀 것을 권한다. 저급처럼 열심히 편집 업무를 보는 편집인이 오랜 기간 맡아 학술지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인덱스 메디쿠스에 등재되는 지름길이다. 국내 참고문헌의 오류가 14.0% 이므로 copy editor 를 고용하여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지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에서 일 년에 2회 발행하는 공식학술지로, 자기공명의학 분야의 의학뿐 아니라 전자공학 분야의 회원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영상의학 분야에서도 가장 최신의 진단도구를 다루고 있다. 인쇄용지 및 lay-out, 사진의 질 등은 국제학술지에 손색이 없다. 투고규정도 잘 정비되었고 저지도 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 학술지 영문 약어 표기에서 오류가 있으며, 국내 참고문헌 오류율이 7.7% 이므로 앞으로 copy editor 와 계약을 맺거나, 고용하여 참고문헌을 꼼꼼하게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은 앞으로 Digital Object Identifier 참여를 위하여서도 전부 영문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회원이 400명이 넘지만, 일 년에 두 호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10편, 2005년도 14편, 2006년도에 증례 2편 포함하여 13편, 2007년 제1호에 증례 2편, 원저 4편, 증설 2편으로 합 8편으로 발행 논문 수가 적어 심의를 철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 대한영상의학회의 학회지와 차별을 어떻게 두고 투고 논문을 확보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6. 예방의학회지

예방의학회지는 대한예방의학회의 공식간행물이다. 평가대상이 된 2007년도 9월호에는 원저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Medline 과 KoreaMed 등재학술지라는 표기를 하는 것과 original work 이외 형태의 원고에 관한 형식도 제시하는 것이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권고하였다. 투고규정이 영문으로 기재되었는데 글씨체가 지나치게 작았으며, 대부분 국문 논문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국문 투고규정도 필요하였다. 투고규정에 논문의 길이를 8쪽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인쇄된 논문에서 10, 12쪽 짜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편집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학문의 특성상 규정위배를 용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규정을 정비하는 편이 나을 듯 하였다. 참고문헌의 경우 논문제목의 대소문자 통일이 필요하였고 표 내용 중에 띄어쓰기의 오류가 있었고 그림과 표의 설명문안 정렬을 권고하였다. 독특하게 3단으로 조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잘 정비된 학술지로 평가하였다.

7. 전남의대학술지

전남의대 및 전남대의과학연구소에서 일 년에 3회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논문을 수록한다. 투고 규정이 잘 정

비 되어있고 논문도 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 종이질, lay-out, 사진 질 등에서 국제 수준의 편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편집인이 매우 열정을 가지고 학술지를 운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학교 단위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모범을 보이므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앞으로 참고 문헌을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여 Digital Object Identifier 부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참고문헌의 오류율이 7.3%에 이르므로 copy editor 의 힘을 빌려 수정하여야 한다.

8. 천식 및 알레르기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에서 일 년에 4회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이다. 투고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고 편집인의 노력이 돋보이는 학술지로 모든 면에서 국제 수준으로 편집을 하고 있다. 앞으로 Digital object identifier 를 부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투고 규정 중 영문 논문에서 국문 초록을 작성하고 영문 초록이 없으면 등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할 수 없어서 정보제공에서 불리하게 되므로 영문 논문은 반드시 국문 초록 대신 영문 초록을 실도록 수정하는 것을 권한다. 국내 참고문헌의 오류율이 17.0% 이므로 copy editor 에게 이런 오류를 바로 잡도록 한다면 더 훌륭한 모습일 것이다.

9. Immune Netw

논문 하나하나의 편집수준은 사진이나 도형 등을 개선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대한면역학회는 편집인을 장기적으로 일하도록 하고 학회지 발간업무를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물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투고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윤리 관련 조항, 도량형 관련 조항, 중심단어 작성 요령 등 더 자세한 부분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논문 편집의 lay-out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평가위원이 있었다. 투고 규정 등 편집인이 관리하는 부분의 lay-out 이 너무 엉성하며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학회지 내 표지에 판권 페이지를 신설하고 학회지 목적과 범위(aims and scope), 독자에 대한 각종 안내사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협의회 조사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과거에 비하면 현저히 발전하였으나 global standard 에는 아직 못 미친다.

10. J Cardiovasc Ultrasound

학회지 편집에 투자한 결과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편집상태는 약간의 문제만을 제외하면 훌륭한 편이다. 투고규정에 윤리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판권란을 개편하여 내표지에 학술지 목적, 취급 논문 범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 평가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높이 평가받지 못했다. 초세부학회의 성격이어서 원저논문이 적은 것을 증례보고 논문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1. Korean J Physiol Pharmacol

처음 평가받았을 때 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투고 규정은 윤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실물평가 결과에서는 사진 등의 문제를 제외하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논문 편집의 lay-out 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평가위원이 있었다. 이번 평가의 대상이 된 호의 논문수가 우연히 4편에 불과한 점은 학술지 전체의 건강성에 의심받을 상환임을 지적받았다. 협의회 조사항목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학술지 국제화에 더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12. Korean J Radiol

SCI-E 등재 학술지로서 신규평가 때 보다 훨씬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투고규정 윤리관련 부분에 IRB 에 관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고 도형그림의 글씨를 편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사대상호에 처음 게재된 Book Review 편집을 외국 우수 학술지의 예를 따라 말미에 위치하게 하고 독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추가해서 편집하기를 권하였다. 내표지에 학술지 목적과 투고 원고 범위 독자 안내 등을 포함한 판권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협의회 평가항목은 매우 높이 평가받았다.